



문화예술 속

교량의 미학

문학 (시, 수필, 소설) · 미술 (회화, 조소, 공예, 영상) · 공연 (연극, 영화, 음악, 무용, 축제)
작품 속 교량의 미학적 가치를 찾아서

문화예술(文化藝術)은 문화와 예술을 융합한 복합어이다. 문화라고만 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고, 예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좁기에 문화와 예술을 융합하여 예술 활동이 있는 문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문화예술은 문학, 영상, 공연, 전통, 음악 등 예술 및 문화 활동 모두를 포함한다.

[출처: 위키백과]



저자 문지영은 글 쓰는 작가이자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 활동 중이다. 대표 저서로는 ■ 내려놓기(2022년, 교보eBook 전자책) ■ 상상 그 이상, 조선시대 교량의 비밀(2012년 초판, 2022년 초판 3쇄,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 ■ 미학적으로 교량보기(2014년 초판, 2015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자연과학부문 선정, 2014년 대한토목학회 저술상 수상) ■ 자연과 문명의 조화, 토목공학(2015년 초판 공저, 2018년 개정판 공저, 초판 3쇄+2판 3쇄, 2016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자연과학부문 선정) ■ 숫자로 보는 대한토목학회 70년(토목 70년(1951-2021), 그리고...)(2021년 공저, e-book+paper book) ■ 내가 사랑한 디노베이터 Design Innovator I loved(2020년 공저) ■ 서울대학교 토목공학의 100년 돌아보기(2016년 공저) ■ 생각을 말해 봐(2015년 공저) ■ 현대 경관을 보는 열두 가지 시선(2006년 공저) 등이 있으며 ■ 토목, 인생, 무엇이 궁금해?(2023년) ■ 다리 구조 교과서(2017년)는 감수를 했다. 유튜브 <나답게: 토목과 디자인 그리고 조경의 경계를 넘나드는 삶(2022년)> 영상에 보다 자세한 저자 소개를 담았다. ■ 2023년 봄호부터 시작한 본 도로교통저널 <문화예술 속 교량의 미학> 연재에 이어, ■ 2024년 3월부터 대한토목학회 학회지에 <문화예술 속 토목구조물의 미학>을 매달 기고하고 있다. ■ 2024년 6월부터는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학회지에 <문화예술 산책> 제목으로 새롭게 연재를 시작한다.

문지영 | 작가
 외고, 예술학석사, 조경학석사, 공학박사
 (sieyoungmoon@gmail.com)



제6편 돌다리(2)

2024년 여름호



〈사진 2〉 칠월칠석 페스티벌(축제) (출처: 전라일보, 2009)

이번 여름호에서는 ‘돌다리와 러브스토리’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보겠다. ‘다리와 사랑 이야기’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숙명(宿命)을 지니고 있다. 특히 돌다리에서 혹은 돌다리를 통해 사랑이 무르익었는데, 오늘 그 이야기의 일부를 들려드리겠다. 돌다리가 품은 러브스토리는 ① 남녀의 사랑, ② 부모에 대한 자식의 사랑, ③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④ 과거 임금에 대한 백성의 충성심, ⑤ (과거) 임금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이들의 애뜻한 마음이 ‘실질적인 돌다리 가설’로 이어졌거나 ‘전설, 민담, 설화, 소설 속 돌다리와 러브스토리’의 형태로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오작교(烏鵲橋)는 견우(牽牛)와 직녀(織女)가 칠석(七夕; 음력 7월 7일)날 1년에 딱 한 번 만날 때 만들어지는 다리이다. 까막까치(까마귀와 까치)가 직접 다리가 되어 서로의 몸을 이어 길(다리)을 만들면 견우와 직녀가 각각 동쪽과 서쪽 하늘에서 이들을 밟고 서로에게 다가가 결국 상봉하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이날만큼은 지상에서 까마귀와 까치를 볼 수 없었다고도 전해진다. 또 다른 오작교(烏鵲橋)는 길이 57m, 폭 2.4m, 4개의 홍예를 갖춘 광한루원(廣寒樓苑) 지당(池塘; 연못) 내 놓인 것으로, 이몽룡(李夢龍; 이도령, 남원부사의 아들)과 성춘향(成春香, 퇴역기생 월매의 딸)의 러브스토리가 전해지는 장소이다 (사진1, 사진2). 춘향전(春香傳, 조선의 고전 소설) 대사가 람본(춘향가; 春香歌)에는 “네 얼굴 네 태도는 세상인물 아니로다. 저 다리가 오작교니 직녀성이 건너왔다. 이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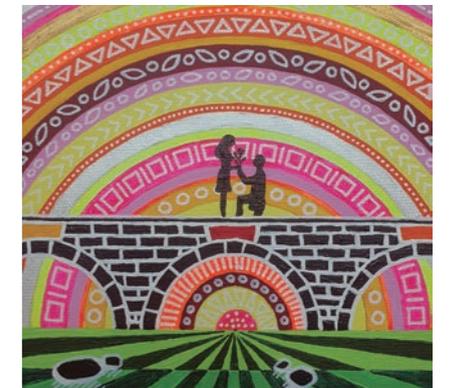
〈사진 1〉 남원 오작교에서 사랑 나누세요 (출처: 중앙일보, 2008)



〈그림 1〉 돌다리처럼 단단하고 튼튼하며 변함없을 나의 사랑을 너에게 줄게 (©문지영 작품)



〈그림 2〉 돌다리처럼 단단하고 튼튼하며 변함없을 나의 사랑을 너에게 줄게 _부분 1 (©문지영 작품)



〈그림 3〉 돌다리처럼 단단하고 튼튼하며 변함없을 나의 사랑을 너에게 줄게 _부분 2 (©문지영 작품)

이 광한루니 월궁항아 내려왔다.”가 기록되어 있다. 강진 병영성 홍교(康津 兵營城 虹橋)에는 머슴 유총각(劉總角)과 부유한 주인의 딸 김낭자(金娘子)의 신분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가 전해진다(오제택 『우리의 옛다리』 2009:p.147, 손광섭 『천년 후, 다시 다리를 건너다』 2003: pp.196-198, 202). 어느 봄날, 산속에서 갑자기 소낙비를 만난 유총각과 김낭자는 큰 소나무 아래에서 사랑을 고백하게 되고, 곧 유한계(劉漢啓) 정승을 갖게 되는데... 유한계 정승은 아버지 유총각을 닮아 총명하여 훗날 과거에 훌륭한 성적으로 급제한다. 이후 유한계 정승이 고향으로 돌아오자, 병영에서는 그의 금의환향(錦衣還鄉)을 기념하여 병영성 홍교를 가설하였다고 한다.



〈사진 3〉 수표교

수표교(水標橋) 건너에는 조선왕조의 태조·세조·원종·숙종·영조·순조의 영정(影幀)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던 전각인 영희전(永禧殿)이 있었다. 따라서 국왕들이 설날·한식·단오·추석·동짓날·선달그믐에 이 다리를 왕래했다. 어느 날 숙종(肅宗)이 영희전을 참배하고 돌아오는 길에 수표교를 건너다가 장통방(長通坊)에 있던 여염집에서 문밖으로 왕의 행차를 지켜보던 아름다운 아가씨를 발견하고 이내 궁궐로 불러들이기까지 했는데, 그가 장희빈(張禧嬪)이었다는 설이 있다(문화재청 인터넷 홈페이지). 수표교에 얽힌 또 다른 러브스토리에는 이전 번 봄호에 수록한 '수표교 다리밧기(축제)'에서 일어난 이 안놀과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다. 수표교에서뿐만 아니라 광통교(廣通橋) 외 돌다리 밧기 축제에서 선남선녀의 애정 표현 및 행각이 있었다.

순흥 청다리에서도 사랑 이야기가 전해진다. “다리 혹은 청다리 밑에서 아이를 주워왔다.”는 말이 생겨난 것은 소수서원(紹修書院)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 소수서원에는 전국에서 모여든 젊은 선비들이 많았고 이 지역의 처녀들과 눈이 맞아 사랑을 나누게 되면서 원치 않은 아이를 배

게 되었다고 한다. 갓 태어난 아기를 강보에 싸서 한밤중에 소수서원 옆 청다리 아래 버리기도 했는데 이 소문이 점차 퍼져나가자,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들었다고 한다. 이렇게 하여 “청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말이 생겨났다. 청다리의 ‘청(靑)’은 ‘청루(靑樓)’를 뜻하며, ‘기생집’을 뜻한다고 전한다(한중기, 2001: 경남일보 인터넷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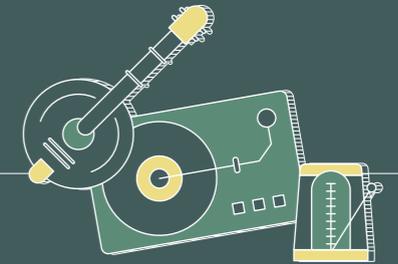
불교에서 들리는 돌다리 러브스토리가 있다. 부처(佛陀, 붓다)의 사촌 동생 겸 제자인 아난 존자(阿難 尊者)가 출가하기 직전 돌다리에서 한 소녀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출가를 망설이는 아난에게 부처가 물었다. “아난아, 그 소녀를 사랑하는 게 어느 정도냐?” 그러자 아난 존자가 대답했다. “돌다리로 화하여 오백 년 바람을 맞고, 오백 년 햇볕을 쬐고, 오백 년 비를 맞겠습니다. 그러다 언젠가 한 번이라도 저를 밟고 건너기를 원합니다. 그녀가 돌다리(아난 존자 본인)를 건널 때면 환하게 웃겠습니다.”라고. 이보다 더 순수한 사랑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묻고 싶다.

‘Bridge Over Troubled Water(거친 물결 위를 가로지



〈사진 4〉 CD 앨범 (출처: <https://eil.com>)

르는 다리’ 노래를 기억하는지? 1970년도에 발표된 사이먼 & 가펩클(Simon & Garfunkel)의 6집이자 마지막 앨범(사진 4)에 수록된 곡이다. 노래 가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노래에서 Troubled Water(거친 물결)은 인간이 살아가야 하는 험난한 세상 풍파를 말한다. 이 거친 세상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무사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거친 물결 위에 본인이 직접 다리가 되어주겠노라고 나를 밟고 안전하게 잘 건너가라고 노래하고 있다. 눈물겨운 사랑이 느껴진다.



Bridge Over Troubled Water

When you're weary Feeling small
When tears are in your eyes
I will dry them all
I'm on your side
When times get rough
And friends just can't be found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I will lay me down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I will lay me down

When you're down and out
When you're on the street
When evening falls so hard
I will comfort you
I'll take your part
When darkness comes And pain is all around

거친 물결 위를 가로지르는 다리

당신이 지쳐 작게 느껴지고
당신의 눈에 눈물이 고일 때
내가 닦아 줄게요
제가 당신 곁에 있어요
오! 시절이 힘겨워지고
친구들을 찾을 수 없을 때

험한 강물 위에 놓인 다리처럼
저를 놓으셨어요
험한 강물 위에 놓인 다리처럼
저를 놓으셨어요

당신이 낙담하고 힘이 빠져
당신이 거리에 있고
저녁은 그렇게 힘들게 찾아올 때
제가 당신을 위로해 드리고
당신 편에서 드릴게요
오! 어둠이 몰려와 주위가 온통 고통으로 가득할 때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I will lay me down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I will lay me down

Sail on Silver Girl Sail on by
Your time has come to shine
All your dreams are on their way

See how they shine (See how they shine)
If you need a friend (If you need a friend)
I'm sailing right behind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I will ease your mind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I will ease your mind
I will ease your mind.



험한 강물 위에 놓인 다리처럼
저를 놓으셨어요
험한 강물 위에 놓인 다리처럼
저를 놓으셨어요

노를 저어요, 은빛 소녀여, 계속 저어 나가요
당신의 시간이 환하게 빛날 때가 찾아올 거예요
당신의 모든 꿈들이

봐요 반짝이는 그 꿈들을
오! 만약 당신이 친구가 필요할 때
제가 당신 바로 뒤에서 노를 젓고 있을 거예요

험한 강물 위에 놓인 다리처럼
당신의 마음을 편하게 하겠어요

험한 강물 위에 놓인 다리처럼
당신의 마음을 편하게 하겠어요

부모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다리에는 '담양 용대리 석교'와 '청다리'가 전한다. 담양 용대리 석교(潭陽 龍垈里 石橋)는 마을에 놓인 효자비(孝子碑)의 주인공 이경록이 동네 개천을 건너는 부모님의 수고를 덜어드리고자 놓은 다리라고 전해진다. '청다리'는 '청을 하여 놓은 다리'의 의미인데(손광섭 『옛 다리를 찾아서』 2005: p.63), 이야기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소백산 죽계천 남쪽 마을에 아들 하나를 키우며 외롭게 살아가던 과부가 있었다. 그리고 북쪽 마을에는 홀아비 짚신 장수가 살았고, 이 짚신 장수는 순흥시장에 짚신을 팔러 왔다가 과부와 눈이 맞게 되었는데, 이날 이후로 밤중이 되면 과부가 죽계천을 건너 짚신 장수를 만나러 나가곤 했다. 봄이나 여름에는 괜찮았지만, 추운 겨울에 발을 적셔가며 물을 건넌다는 것은 보통의 일이 아니었기에 이를 보다 못한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 돌다리를 놓아드렸다. 그래도 춥고 어두운 겨울 밤에 내를 건너기가 쉽지는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때마침 중앙에서 높은 분이 내려온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고 이 소식을 귀담아듣던 아들은 이 분이 지나갈 때를 기다려 그 앞에 나아가 어머니의 일을 고하고 다리를 놓아달라 '청(부탁)'을 하였다. 사정을 들은 높으신 분은 아들의 효성이 지극하다고 생각하여 흔쾌히 다리를 놓아주었는데, 이것이 바로 '청다리' 였다고 한다.

임금에 대한 백성의 충성심이 전해지는 교량이 있다. 성종(成宗)이 달 밝은 밤에 광통교(廣通橋)를 찾았다. 마침 다리 밑에는 경상도 흥해에서 올라온 사내가 짐을 짊어진 채 하루를 묵으려던 참이었다. 신분을 속인 임금은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다. 그 사내는 임금이 어질다 하여 죽기 전에 임금을 꼭 알현하고자 어렵게 먼 길을 찾아온 것이라 말했다. 성종은 자신을 이침지라고 소개하고 임금을 알현하도록 주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임금을 만나려면 벼슬이 있어야 한다며 성종은 그에게 충의초사(忠義初仕)라는 벼슬을 하사했다. 얼떨결에 벼슬을 받게 된 사내는 임금께 인사드리러 궁에 들어가게 되었고, 자신이 그토록 뵈고 싶었던 임금이 이침지였음을 알고 놀람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김선풍, 2006: 서울 중구문화원 칼럼). 임금이 백성을 위해 놓은 다리도 여럿 전한다. 배다리, 청계천의 다리 등 왕실의 행차를 위해 놓기도 했으나 백성에게도 이로움이 있도록 여러모로 검토한 기록들이 전해진다. 조선시대의 돌다리 중 가장 긴 중랑천의 살곶이다리도 이에 속한다.

타인을 배려한 마음이 전해지는 다리로는 '강경미내다리'와 '송광사 삼청교'를 들 수 있다. 이들 두 다리 이야기는 교량가설과 관련이 있다. 교량가설 후 남은 엽전을 교량 밑에 두거나(강경미내다리) 혹은 흥에 하부 중앙의 용머리에 매달아 놓음(송광사 삼청교)으로 훗날 교량이 무너질 경우를 대비해 그 돈으로 보수하라는 타인에 대한 마음 씀씀이를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혹자는 "불사(佛事)를 위해 마련한 돈은 반드시 불사를 위해 써야 한다."라는 정신의 발현으로 해석하기도 했다(오제택 『우리의 옛다리』 2009: pp.144-145, 손광섭 『천년 후, 다시 다리를 건너다』 2003: pp.21-22). 서울과 경기도 지방의 향도가(향두가, 상엿소리)에 나오는 소리 가운데 "깊은 물에 다리 놓아 월천포시(越川布施, 월천공덕) 하였는가"라는 구절이 전한다. 향도가는 원래 불교 의식에서 유래했는데, 불교에서는 타인을 배려하여 다리 놓는 것을 장려했다. 이는 자기 수양의 목적으로 가설되기도 했지만, 그 심층의 도로는 타인을 위한 애씀(사랑)이 들어있다. 주로 사찰의

스님들에 의해 흥교 가설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다수의 문헌이 존재한다.

프랑스 센강(La Seine)의 대표적인 보도교 폰테자르(Pont des Arts)(사진 5, 사진 6)는 영어로 Bridge of the Arts, 한글로 '예술의 다리'이다. 다리 위 난간에는 수많은 자물쇠가 빼곡하게 채워있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 변치 말자고 기념하는 의미로 하나씩 걸어놓았다. 그러다 보니 과한 무게로 난간이 낙하하는 사고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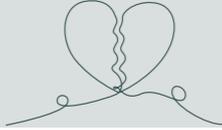


〈사진 5〉 폰테자르(Pont des Arts) 난간의 자물쇠
(출처: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



〈사진 6〉 폰테자르(Pont des Arts) 교량 하부로 유람선이 지나가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14)

다리를 통한, 다리에 연관된 러브스토리는 행복하고 설레며 향기로운 이야기만 전해지는 게 아니다. 가슴 아픈 러브스토리도 있다.



영도교(永渡橋)는 단종(端宗)과 정순왕후(定順王后)의 애절한 이별 이야기를 담고 있다. 단종이 정순왕후와 헤어질 때 이 다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별했는데, 그 이후 다시는 만나지 못해서 ‘영영 이별 다리’, ‘영영 건넌 다리’, ‘영 이별 다리’, ‘영이별교’라는 뜻의 ‘영도교’ 이름이 되었다(송채경화, 2010: 한겨레신문 인터넷 기사).

교량의 본래 속성은 연결하는 것이지만, 끊긴, 고립되어 버린, 무너진 교량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 사랑의 연결을 꿈꾸었으나 실연당한 주인공이 쓴 애절한 시가 있다. 『미라보 다리 아래 쉽 없이 흐르는 강물, 흘러가는 시간과 세월, 지나간 사랑, 그러나 미라보 다리 위에서만큼은 정지된 듯 느껴지는, 그래서 심장에 구멍이 난 듯 공허하고 쓰라린 주인공의 애절한 심정을 대조법으로 그려 내어 실연의 아픔을 생생하게 표현했다. 시인은 “밤이여 오라 종이어 울려라. / 세월은 흐르고 나는 여기 있다”를 주문처럼 반복하며 자기 자신을 다독인다. <미라보 다리(Le Pont Mirabeau)> 시 속의 두 주인공은 기욤 아폴리네르(Guillaume Apollinaire, 1880~1918) 본인과 마리 로랑생(Marie Laurencin, 1883~1956)이다. 이들은 미라보 다리 근처에 살았다. 기욤 아폴리네르는 그녀 마리 로랑생을 만

미라보 다리 (Le Pont Mirabeau)

나기 위해 매일 이 다리를 건넜다고 한다. 따라서 헤어진 후 그에게 이 다리는 그 어떤 장소보다도 실연의 아픔을 불러일으킨 곳이었을 거다. 마음이 돌아선 그녀에 대한 원망, 미움, 고민, 사랑, 아픔, 안타까움, 이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을 미라보 다리 아래로 흐르는 강물에 떠내려 보냈으리라.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다리 아래로 그들의 추억을 하나씩 내던졌으리라.

미라보 다리 아래 센강이 흐르고
우리들의 사랑도 흘러간다.
그러나 괴로움에 이어서 오는 기쁨을
나는 또한 기억하고 있나니,
밤이여 오라 종이어 울려라,
세월은 흘러가는데, 나는 이곳에 머무르네.

손에 손을 잡고서 얼굴을 마주 보자.
우리들의 팔 밑으로
미끄러운 물결의
영원한 눈길이 지나갈 때
밤이여 오라 종이어 울려라,
세월은 흘러가는데, 나는 이곳에 머무르네.

흐르는 강물처럼 사랑은 흘러간다.
사랑은 흘러간다.
삶이 느리듯이
희망이 강렬하듯이
밤이여 오라 종이어 울려라,
세월은 흘러가는데, 나는 이곳에 머무르네.

날이 가고 세월이 지나면
가버린 시간도
사랑도 돌아오지 않고
미라보 다리 아래 센강만 흐른다.
밤이여 오라 종이어 울려라,
세월은 흘러가는데, 나는 이곳에 머무르네.

- 기욤 아폴리네르 (Guillaume Apollinaire)



<그림 4> <시인에게 영감을 주는 뮤즈>, 앙리 루소, 캔버스에 유화, 146X97cm, 1909년, 바젤미술관

<시인에게 영감을 주는 뮤즈>(그림 4)는 화가 앙리 루소(Henri Rousseau, 1844~1910)가 시인 기욤 아폴리네르와 화가 마리 로랑생을 위해 그린 작품이다. 그림 속 아폴리네르는 깃털 펜과 종이를 들고 있고, 마리 로랑생은 여신처럼 두 손가락을 들어 축복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다. 하지만 이 그림은 안타깝게도 찰나의 순간으로 마무리된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들의 사랑은 미라보 다리 아래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지나가 버리고 말았으니, 흐르는 시간과 떠나간 사랑은 되돌아오지 않았다. 이별 후 마리 로랑생은 독일 귀족과 결혼했고 프랑스를 떠났다. 이후 아폴리네르는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 후 상처를 입었고, 스페인 독감까지 걸려 결국 사망하게 된다. 마리 로랑생은 남편과 이혼 후 파리로 돌아왔는데, 미라보 다리에 찾아와서 이미 세상을 떠난 기욤 아폴리네르와의 추억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다. 🇫🇷



독자 여러분의 다리에서의 혹은 다리와 관련된 러브스토리가 궁금하다. 이왕이면 아름다운 추억, 해피엔딩이면 좋겠다. 아직 떠오르는 이야기가 없다면 근일 내 하나 만들어 봄은 어떠한가?

1) 문지영(2015년 11.12월호), 『글과 그림 속 교량을 찾아서 - 미라보 다리 아래 세느 강만 흐른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협회지, pp.52,53